◇기지촌문제와 기지촌활동

왜곡된 역사의 뒷골목… 기지촌

푸른방… 소외된 민중들과 사랑 나눠

◇기지촌의 혼혈아동들

분단으로 인한 고통의 무게를 수량화하기란 무척 힘이 들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우리의 금수강산을 미군의 군화발로 몰들여 놓는 그 아픔 역시 우리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일 것이다.

기지촌이라 함은 보통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거주지와 상권을 일컫는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서울 중심부에 자리한 이태원, 동두천, 용산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밖에 의정부, 송탄, 부산 등 전국 방방곡곡에 1백 80여개가 넘는 기지촌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곳들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거의 시골이었으나 군사상 중요지역으로 치부되면서 미군기지가 들어와 편성하기 시작한 도시로 그 지역의 토박이들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기지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결집되어 있으며 따라서 미군기지에 기생하는 상권의 형태는 기형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

또한 기지촌은 그 기생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 첫번째가 혼혈아들의 문제이다. 기지촌에는 수많은 혼혈아들이 태어난다. 정확한 집계는 나와있지 않지만 1946년 이후 태어난 혼혈아동의 숫자는 약 7만명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자식의 탄생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아버지, 그것을 바라보는 할머니, 이러한 모습들은 그들 혼혈아들의 탄생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들 혼혈아들은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 사이에서 미국으로 대거 입양된다. 또한 남아있는 아이들은 자신의 외모적 부끄러움과 친구들의 따돌림 속에서 행동이 난폭해지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꺼리는 기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두번째는 클럽 여성들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매춘의 예는 고구려의 '유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병자호란 때에는 만주족 병사들에게 성의 노리개가 되어 끌려갔던 부녀자들이 다시 돌아와도 남편들이 받아주지 않아 사회적 멸시속에서 살다가 배음부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들을 '화냥년'이라 하여 사회의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아야만 했다.

일제시대 우리 나라의 여성들은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에게 천황이 하사한 하사품으로 '정신대'에 끌려 가야만 했다. 그리고 50여년이 지난 지금 기지촌의 클럽 여성들은 사회의 멸시와 천대 속에서 '현대판 정신대'의 길을 걷고 있다. 혼혈아를 자식으로 두고 한국사회에서 소외되어버린 이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이들은 미군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다녀야 한다. 배운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이들에게 미군은 어쩌면 신적(?)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 그 밖에도 클럽의 여성문제는 무수히 많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매춘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날품을 팔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클럽의 허바리가 되어 미군과 한국여성을 연결 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스스로 정신대가 되기 위해 병원에서 성병검진을 받고 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한 검진이 아닌 생존의 문제 그 자체인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기지촌에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의 교육문제이다. 이것은 기지촌이 갖고있는 기형성속에서 미군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상권의 형성과정 중 거의 그대로 유입된 미국의 퇴폐문화에 노출된 아이들이 저질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문화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의 민족문화를 뒤로 한체 미국문화를 좇아가게 되며 무엇보다도 미국에 대한 환상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게 되어 정서적으로 감정이 메말라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인해 기지촌 주변의 많은 학부모들은 자식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 유학(?)을 보내는 일도 다반사라고 하니 가히 그 정도가 엄마인지는 상상하고도 남음직 하다.

그러나 이들을 위해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수원캠퍼스 총여학생회 산하 희망꽃의 한 일원인 푸른방 모임이다.

본래 푸른방 모임은 총여학생회 기활추진위원회의 뒤를 이어 그들의 후원으로 94년 동아리화 시킨 단체이다.

방장인 강신숙(불문·93졸)양과 3학년 2명, 2학년 1명으로 구성된 푸른방은 기지촌 내에서 공부방과 놀이방, 송탄(오산 기지촌) 주변의 클럽방문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송탄의 향유선교교회에서 혼혈아 어린이들의 공부방과 놀이방 교사를 맡고있는 강신숙양은 "가장 억압받는 민중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기지촌이다"라며 "기지촌 활동을 통해 가장 소외받고 있는 클럽의 여성들, 혼혈아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불어넣어 주겠다"고 다짐했다.

앞으로 사회봉사와 여성문제의 해소를 위해 사랑을 나누어 줄 푸른방의 푸르미들은 하나같이 결의에 찬 모습들로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94년 신입생들의 마음에도 우리의 사랑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모상용 記者〉

朔風

역사의 주인으로 바로서자

"인간은 여성을 다루는 방식에 따라 그 문명을 알 수 있다"는 경구는 지난 3월9일부터 필리핀에서 제작돼 마닐라를 비롯한 전국 영화관에서 개봉 되고 있는 영화 포스터에 실린 글이다.

〈위안부(comport women)〉라는 제목의 이 영화에서는 집단강간, 공개처형, 고문 등 일본군의 비인도적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조 시키고 있다고 한다.

최근 제네바에서 개최중인 유엔인권위는 일본군의 종군 위안부 동원 문제에 관련해 책임과 처벌문제를 의제로 다루도록 하는 결의를 채택 했다고 한다.

이 보도를 접하면서 언젠가 TV를 통해 보았던 정신대 할머니의 클로즈업된 얼굴이 조금은 퍼졌을 거란 상상을 해 본다.

그러나 이들의 한과 설움을 달래주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며, 어찌면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게 될지 모른다.

역사를 되돌아 보면 정신대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상처이며, 서로 부둥켜 안고 치유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나 및및 재야단체들의 성규가 전부였다.

정부차원에서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고 번번히 실리외교(?)론과 과거사로 치부되어 소외되었으며, 일본정부의 망장난에 불과한 "유감(遺憾)","진사(陳謝)"라는 말에 스스로 큰 외미를 부여하며 만족해 왔다.

더 이상 과거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다는 문민정부의 발상은 우리의 역사를 더욱 후퇴시키고 헤어나지 못하는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구한말 대한 제국의 관료중 67.6%가 일제 식민 통치의 관리들로 활동했으며, 그들은 해방후에도 미군정이 식민지 관료기구를 그대로 부활시키는 바람에 오늘날까지 그 맥을 이어 오고 있다.

이러한 역사의 맥이 이 나라를 정통성없는 민족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지 모른다.

역사는 미래를 보는 거울이라 한다.

실사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과감한 평가와 단죄를 내리고 넘어가야 한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 인권위의 결의를 보며, 이제 조금은 뭔가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기쁨보다는 우리 모두의 노력은 얼마였으며, 주체국가로서의 정부 노력은 얼마였는지 생각해 볼새 씁쓸한 아픔이 더 크다.

우리의 역사가 남의 손에 내맡겨진 느낌이다.

유엔 인권위는 위안부 문제와 같은 중대한 인권 침해의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는것은 국제법 위반이 된다는 보고서를 보태모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연구를 할 것이라 한다.

이러한 유엔의 노력들이 이미 우리 정부에 의해 이루어져 모든 자료와 연구가 있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앞선다.

그래서 유엔이 이러한 노력을 할 필요도 없이 우리 정부가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유엔은 그 자료의 사실여부만 검증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일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의 주도적인 모습을 기대해 본다.

위안부에 관련된 영화가 우리나라에도 만들어져 전국민이 공감할 수 있었으면 싶다.

지금 필리핀의 마닐라는 어떨런지…

위안부 할머니의 상처는 우리 모두의 상처이다.

우리 모두가 보듬고 치료해야 할 것이다 〈참호〉

알림터

교수동정

송정상 교수 방미

【서울 캠퍼스】▲송정상(의과대학·의학)교수=14일부터 22일까지 학회참석차 미국방문 ▲윤억(의과대학·의학)교수=20일부터 30일까지 학회참석차 미국방문

【수원 캠퍼스】김상준(자연대·우주과학과)교수=3월13일부터 20일까지 연구및 세미나 참석차 미국방문.

등 기

등기물 총무과로

【서울 캠퍼스】▲이현이(국문) ▲이승수(국문·3) ▲박진강(국문·3) ▲김상부(영문·4) ▲최정민(철학·4) ▲이의정(지리·4) ▲이상홍(지리·3) ▲양성희(지리·3) ▲손정민(지리·3) ▲김현수(수학) ▲박군담(수학·2) ▲손진영(수학·2) ▲이영비(수학) ▲손우성(통민·2) ▲배숙양(법학·1) ▲김유성(법학·1) ▲심세의(법학·1) ▲최강묵(행정·4) ▲심미영(정외·3) ▲권영철(경제·3) ▲조영경(경제·3) ▲문길주(경영·3) ▲박정수(경영·4) ▲송충환(경영·1) ▲박준양(경영·2) ▲이제명(경영·4) ▲이영일(경영·4) ▲김종선(무역·4) ▲노유정(영교) ▲이수연(영교·3) ▲은세진(미교·1) ▲박혜정(가관·3) ▲최필란(가관·2) ▲하재은(식영·2) ▲김경용(식영·2) ▲윤지영(의상·2) ▲엄우연(의학·2) ▲김용범(의본·4) ▲이성선(간호·4) ▲양영준(한의본·4) ▲정춘근(한의본·3) ▲전택연(치본·4) ▲황정환(치본·4) ▲이승엽(치본·3) ▲정동호(치의학·2) ▲송주경(약학·4) ▲김미영(약학·3) ▲서일권(약학·4) ▲이덕재(약학·2) ▲심수진(기악·4) ▲양윤정(기악·4) ▲이승원(축구부) ▲신강재(삼의원·412) ▲김정훈(삼의원 408) ▲김상록(삼의원 206) ▲신규호(삼의원 505) ▲박정배(삼의원 320) ▲이수정(삼의원 221) ▲김덕임(삼의원 405) ▲구자형(삼의원 422) ▲손언익(삼의원 502) ▲정은영(삼의원 220) ▲김보경(삼의원 408) ▲이현미(삼의원 209) ▲김영일(삼의원 503) ▲김동식(삼의원 518) ▲전지영(삼의원 215) ▲정지환(삼의원 315) ▲김상진(삼의원 312)

【수원 캠퍼스】▲이현우(영문·3) ▲최혜정(영문·1) ▲최주민(일문·2) ▲오난희(러어·2) ▲김옥수(행정·4) ▲정방진(경영·4) ▲최정명(경영·4) ▲김철육(물리·3) ▲정동훈(화공·4) ▲박구곤(화공·2) ▲정성인(화공·2) ▲최윤섭(건축·4) ▲문준호(건축·3) ▲석광석(토목·3) ▲박종황(토목·4) ▲류석진(원자·3) ▲정남식(전자·3) ▲이송북(전자·4) ▲이창열(전자·4) ▲김준기(기계·2) ▲김도형(기계·3) ▲정순기(기계·4) ▲차승록(전산·3) ▲정태종(전산) ▲고하나(전산) ▲최승돈(전산) ▲김신안(전산·2) ▲최동훈(식가공·2) ▲하병천(임학·4) ▲김대성(태권도) ▲나현선(체육·3) ▲이혜영(애지원 439) ▲이청송(애지원 309) ▲윤노영(애지원 409) ▲김범진(애지원 204) ▲김기한(애지원 327) ▲전빈구(애지원 307) ▲최윤동(국선관)

분 실

습득자 편집실로

【수원 캠퍼스】◇열쇠지갑=지난 7일밤 '화사랑'앞 식당

습 득

분실자 편집실로

【서울 캠퍼스】◇지갑=김은아(기악) ◇서적='심리학의 이해' 학생회관1층 공중전화 박스

【수원 캠퍼스】◇지갑=조수은(임학·93) 정형진(경영·93) 이 재근(체육·86) 홍석민(체 육·91) ◇학생증=유재승(일문·89)

동문모임

가락고 동문회

【서울 캠퍼스】▲서초고=16일 OLD CLOCK ▲서석고=18일 오후 5시 체대앞 녹원 ▲석산고=18일 오후 5시30분 유림회관 ▲여수향우회=18일 오후 5시 태창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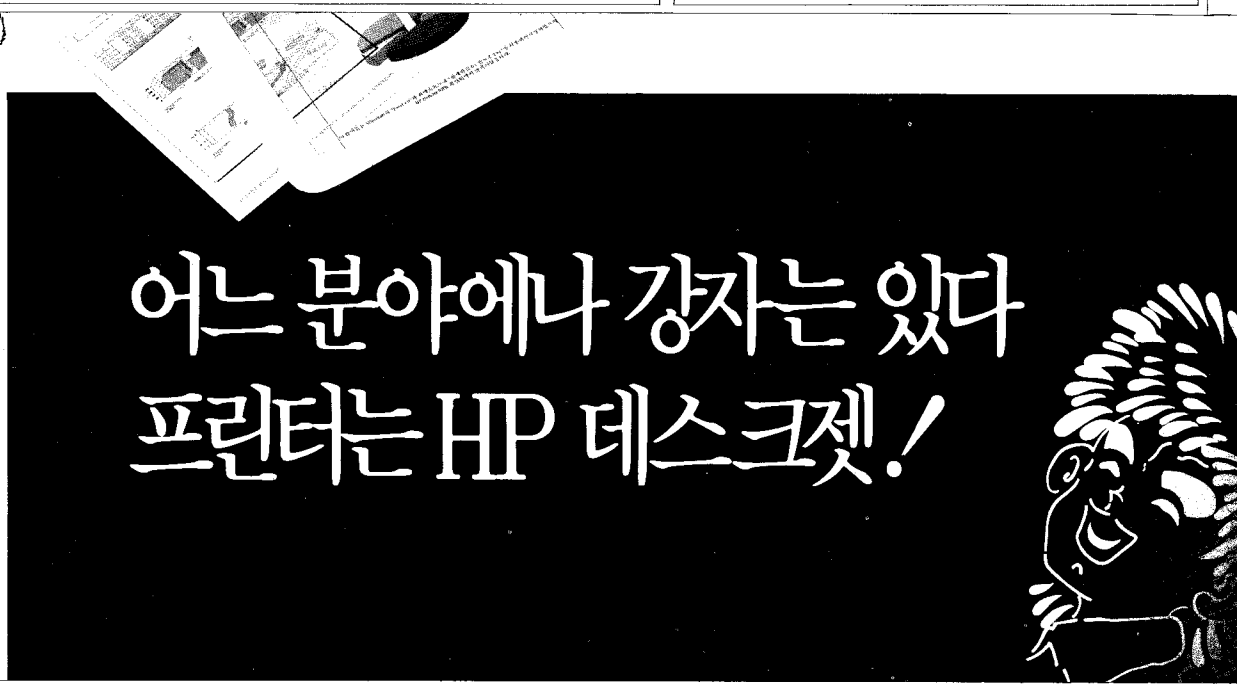
【수원 캠퍼스】▲삼문·은광여고=18일 오후 5시30분 외대앞 ▲중경고=18일 오후 5시30분 공대식당 ▲상주 향우회=15일 오후 5시30분 학생회관 휴게실 ▲선정고=18일 오후 5시30분 공대식당 ▲장신고=16일 오후 5시30분 공대식당 ▲장충고=18일 오후 5시30분 외대매점 ▲경성고=18일 오후 5시30분 공대식당 ▲강릉고=18일 오후 5시30분 공대식당 ▲천안여고=18일 오후 5시30분 공대식당 ▲덕성·대일고=18일 오후 5시30분 공대식당 ▲숭실·숭의고=24일 오후 5시30분 공대식당 ▲가락고=16일 오후 5시30분 공대식당 ▲광주 안성고=18일 오후 5시30분 공대식당 ▲수토고=18일 오후 5시30분 공대식당

발전기금 출연내역 및 명단

경희여고 총1천1백90만원 기증

△안영준(경희여고 경리주임):30만원 △서용남(〃 서무주임):30만원 △변정숙(〃 교무주임):30만원 △류홍렬(〃 주임교사):30만원 △김승축(〃 교도주임):30만원 △류홍식(〃 윤리주임):10만원 △김기순(〃 교원):20만원 △최영재(〃 교사):20만원 △홍화식(〃):20만원 △김경향(〃):20만원 △윤용호(〃):20만원 △문용길(〃):20만원 △이문규(〃):20만원 △손수영(〃):20만원 △박영석(〃):20만원 △전창규(〃):20만원 △배전해(〃):20만원 △문인숙(〃):20만원 △김수길(〃):20만원 △박숙자(〃):20만원 △이한용(〃):20만원 △임병숙(〃):20만원 △김동희(〃):20만원 △유병희(〃):20만원 △이은종(〃):20만원 △김용희(〃):20만원 △이호식(〃):20만원 △이태훈(〃):20만원 △방혜영(〃):20만원 △황미연(〃):20만원 △김한길(〃):20만원 △홍의표(〃):20만원 △조항노(〃):20만원 △신경미(〃):20만원 △백기섭(〃):20만원 △신지영(〃):20만원 △송국호(〃):20만원 △김명관(〃):20만원 △이후남(〃):20만원 △조보윤(〃):20만원 △정병엽(〃 교장):1백만원 △박용수(〃 교감):50만원 △김전(〃 연구주임):1백만원 △서문길(〃 서무과장):50만원 △박찬규(〃 교사):50만원

프린터는 HP 데스크젯



HP FIRST
자료정보 FAX로 간편하게 / HP FIRST —
자료 및 서울대학교 내외에 FAX로 바로 보내줌 주 방식이다
문의 02-880-7400(대표) 주식회사 대우
입력자료보드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942-1 ☎ 1006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 02-6267